

〈제 712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용보증재단

### ◆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노동조합은 지난 5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경영 실천 의지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과 김성광 위원장은 ‘ESG 경영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선포하고 이에 서명했으며, 선포내용은 ▲ESG경영은 재단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 인식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 실천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 구조 확립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실천 등이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ESG경영은 우리세대의 의무이자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수요소가 됐다”며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은행

### ◆ 신입행원과 ‘통통데이’ 진행



광주은행은 최근 송종욱 은행장이 MZ세대 신입 행원들과 ‘송프로와 소통하는 통통데이’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1일, 입교식을 치르고 은행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연수과정에 돌입한 20명의 신입 행원들은 다소 획일화되고 딱딱한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아 직접 진행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신입행원들은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송프로’라고 부르며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으며 평소 송종욱 은행장이 중시하는 소통의 기업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금호고속

#### ◆ 여수서 '짐배송 · 보관 서비스' 개시



금호고속은 지난 6일부터 고객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여수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및 짐보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짐배송' 서비스는 터미널에서 여수 주요 숙소까지 캐리어 등 짐을 당일배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배송 요금은 짐 크기에 따라 1만원~2만원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배송

결과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12월 한달간 여수에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 유스퀘어에서도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개인의 거주지까지 짐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금호고속과 짐배송 서비스 협업중인 '짐캐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터미널 금호고속 영업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또한, 짐배송 서비스와 함께 시작되는 '짐보관' 서비스의 요금은 짐 크기에 따라 1천원~5천원 까지이며, 이용 시 여수터미널 내 금호고속 영업소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 금호타이어

#### ◆ 대외 ESG평가 '우수'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와 한국ESG기준원에서 각각 실버메달과 종합 B+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 대외 ESG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서 설립돼 전세계 175개국 10만 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ESG 평가 플랫폼으로, 실버 메달은 평가 결과 상위 25%

이상의 기업에게만 수여된다.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1,0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를 진행했으며, 금호타이어는 각각 B, A, B 등급을 받아 종합 B+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점수는 금호타이어의 ▲2045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 및 SBTi 가입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인권교육,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방식에 관한 개선 ▲협력사 ESG관리 및 구매담당자 교육 등이 인정받았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ESG경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디에이치글로벌

### ◆ 디에이치글로벌-알프스 파트너십 '시장 확대' 협력



디에이치글로벌(회장 이정권)과 자회사인 자동차 전장기업 대성엘텍이 일본 전자회사 알프스알파인과 간부회의를 열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엔 알프스 측에서 알프스알파인 기모토 전무, 한국 알프스 강동완 대표, 한국 알프스 김연수

책임과 DHG 이정권 회장, DHG 김진우 부회장, DHG 김명욱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사는 회사 소개 PT를 진행한 뒤 DHG의 차량용 냉온장고 제공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알프스알파인과 DHG 자회사인 자동차 전장기업 대성엘텍 역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관련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서로 협력기로 했다.

## 대한적십자사

### ◆ 적십자 봉사회 리더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리더십·자질 향상 및 효율적 봉사회 운영을 위한 '2022년 적십자 봉사회 리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운림동 수자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광주·전남지역 봉사회 임원 180명이 참여해 리더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육 내용은

▲2023년도 사회봉사사업 추진방향 및 재원모금

캠페인 안내 ▲봉사회 운영 실무 ▲심리사회적지지교육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이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이번 교육이 적십자봉사회에서 활발한 인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하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1582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한선(의사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주제: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인간사회의 협력과 갈등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2월9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를 초청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인간사회의 협력과 갈등>이란 주제로 158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진화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협력을 꽃피울 수 있게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생존의 필수요소는 친화력으로 이는 나와 다른 상대방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런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에게서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종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종은 감정 반응을 조절하고 자기통제력을 갖추며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한 것이다.

친화력은 모든 가축화된 종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다. 이런 가축화징후는 홀로 살아 남은 사람 종인 호모사피엔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곧 사람도 가축화되었음을 뜻한다. 친화력이 상승한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연결망을 확장했고 기술혁신을 이루어냈으며, 개선된 기술로 더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사회적 범주도 만들어 냈다.

내집단을 향한 친화력 상승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외집단 구성원을 배제하기도 한다. 친화력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상호 적대감이다. 서로의 집단에 대해 비인간화가 진행된다면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을 유발한다. 싸움은 사실 자원의 분배를 위한 일종의 협력게임이다. 현대인의 삶은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 폭력과 편견의 세상으로 세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優者生存 걱정, 불안, 질병, 고통, 고생, 죽음이 아닌 넉넉하며 도탑고 인정 많고 부드럽고 품위있고 뛰어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회원 CEO 송년회 개최〉



본회는 지난 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회원 CEO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봉길 회장은 “올해 국내외 정세 악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하여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하고 “내년에도 경제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미래산업을 잘 준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회원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70여명의 회원 CEO들이 참석하여 광주경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원 상호 간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사무국 일지(12.5 ~ 12.9)

12.5 (월)	● 회원 CEO 송년회	12.9 (금)	● 제1582회 금요조찬포럼
12.8 (목)	● 전남 일자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1. 노사 동향

### ■ 노사정은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연설

- 국제노동기구(ILO)가 12. 6 ~ 12. 9 제17차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12. 7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신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경직된 근로시간 및 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힘.
  - 특히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밝히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 한편,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각각 정부와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
  - 박종필 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3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했음을 강조
  -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 제29호(강제 노동금지), 제87호(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 제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계 의견 청취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 13 노동개혁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12. 1 경영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계 의견 청취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참고] 연구회 근로시간·임금체계(안)에 대한 경영계 주요 의견

연구회 검토 내용	경영계 주요 의견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주단위 → 월단위 이상)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연장근로 월 단위 이상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강제 반대 · 노사 합의에 따른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선택 필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논의 불필요
화이트칼라-이그샘션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 고소득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에 대한 도입 필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 정부의 임금직무 정보 제공 필요 (예 : 노동통계 전담기관 설립)

- 한편, 양 노총은 12. 8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시키는 노동계약’ 이라고 주장

#### ■ 민주노총과 야당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요구에 주력

- 환노위가 12. 7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들을 중심으로 노조법 제2조·제3조의 연내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 발표
- 한편, 경총이 12. 5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총은 11. 25~30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 2. 법제 동향

### ■ 이주환 의원(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

- (발의 이유)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  
③ 연장근로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또는 연 625시간 내에서 가능 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④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⑥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 ■ 김영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형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김영진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14조)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희롱 발생으로 형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양정숙 의원(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6조의2)상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를 제정·고시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원자재 품목 등의 사항을 포함  
③ 부당한 특약 금지사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하도급 계약 중 부당한 특약 사항을 무효로 하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  
④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 ■ 심상정 의원(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5)

- (발의 이유) 현행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②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종사자격·운송가맹사업의 허가과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 삭제  
③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조항 삭제